



입(口)을 열기 전에 귀(耳)를 열어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늑을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함구개이(緘口開耳)란 말이 있다. 늑을수록 청각 장애를 일으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쓰게 되는데 말은 지장 없이 할 수 있어 상대는 생각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워 하려는 것이 늑은이의 특징이다.

무성(無聲)은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이 맑고 깊은 청이(淸耳)와 영이(靈耳)를 가진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흐리고 열은 속이(俗耳)와 탁이(濁耳)를 가진 사람은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무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도)통한 성인(聖人)이다.

성(聖)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음악의 최고의 경지는 악성(樂聖)이요, 시의 최고의 경지는 시성(詩聖)이며, 글씨의 최고의 경지는 서성(書聖)이요, 바둑의 최고의 경지는 기성(棋聖)이다.

성(聖)자를 보면 참으로 뜻이 깊다. '귀 이(耳)' 자와 '입구(口)' 자와 '임금 왕(王)' 자의 세 요소가 합(合)한 글자다. 성인은 먼저, 남의 이야기와 역사의 소리와 진리의 소리를 조용히 듣는다. 다 듣고 난 후에 입을 열어 말 씀한다. 듣고 말씀하는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성인이다. 그래서 성(聖)자는 귀(耳)와 입(口)과 왕(王)의 세 글자의 요소로 구성된다.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씀을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귀 이(耳)' 자를 먼저 쓰고 '입구(口)' 자를 나중에 쓰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聖)자는 의미심장하다. 남의 이야기를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하려면, 많은 지혜와 체합과 사색이 필요하다. 지혜와 체합과 사색이 부족한 사람은, 피상적으로 듣고 또 느낄 뿐이다.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만 들린다.

문맹(文盲)이 글을 못 보고 색맹(色盲)이 빛깔을 분간하지 못하듯이, 머리가 모자라면 깊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공자는 나이 60이 되어서 비로소 이순(耳順)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순은, 남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경지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깊이 이해하는 경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경지다. 그것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心)이

요, 일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대도량(大度量)이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귀를 열어라. 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라. 전화 수화기를 들면 먼저 상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내가 할 말은 줄여서 간단히 하라.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높이의 톤으로 하고 말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므로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친절히 반복해서 해주어야 한다. 대인 관계에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傾聽)하라. 삼성 그룹 이근희 회장의 좌우명은 경청이었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도 들어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불만은 작은 소리에도 있고 큰 소리에도 있으므로 경청하여 욕구불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간파하여 지도자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은 당선만 되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에 시민 자연인들의 접근을 엄격히 규제하며 벽을 쌓고 있다. 선거 때 겸손과 경청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 권좌를 누리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인데 단체장이 자기의 주변에 인맥의 답을 쌓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보에 늦어진다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 보인다. 필자는 제8기 단체장 취임 후 단체장에게 전할 정보가 있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을 통해 만나려 해도 여까지 핑계를 대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면담은 생각도 못 한다. 이것이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변화된 모습의 소통 행정이다.

단체장 주변의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은 단체장을 만나려 하는 시민 자연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만나서 전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소통 행정이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민선 8기의 단체장들이 소통을 외면한 폐쇄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경청하려 해도 겹겹이 싸인 인맥의 울안에서 경청의 소통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우리 가족 지킴이

기고

주영 장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고층화 밀집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그마한 불씨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충북 제천스포츠클럽 화재,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목길 불법주차 및 아파트 입구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공동주택은 내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아파트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 위층으로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기질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방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인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할 삶의 공간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소화전 사용법을 배워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자. 또한 가족과 함께 화재대피계획을 세워, 비상시 대피훈련을 해 보도록 하자.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소방차량을 위해 꼭 비워 놓도록 하자.

벌 쏘임 사고 예방 및 대처법

기고

박광윤 담양119안전센터 센터장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철 벌초 및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연 평균 5,248건이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29.3%)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벌 쏘임 사고 대부분이 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벌은 아주 작지만 매우 큰 위협을 가지고 있다. 벌에 쏘이면 벌 독 등 알레르기 증상으로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나거나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할 수 있다. 심하면 알레르기 쇼크가 일어나 마비가 오거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는 벌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야외활동 시 벌을 유인하는 단 성분 음료·음식 취식을 자제하는 것이다. 야외에서 음료나 육류, 과일 등을 먹게 되면 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먹다 남은 음료수를 나중에 마시다가 벌이 목 안을 쏘는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벌은 검은색에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므로 밝은 색 옷 착용해야 한다. 말벌을 공격하는 천적은 대개 검은색 털을 가지므로 말벌은 검은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할 땐 밝은 색 상의와 모자를 쓰는 게 좋다. 소매가 긴 옷, 모자,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여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벌집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하고, 벌집 발견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벌이 공격할 땐 벌을 쫓아내지 말고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하면 선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예방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벌에 쏘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밀어내듯이 신속하게 벌집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신속히 벌집을 제거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제거하려다가 벌집이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감소된다. 얼음찜질을 통해 쏘인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간지러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쇼크 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벌 쏘임 예방법과 대처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벌에 쏘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